

체육대회 유치 501억 경제효과

전남지역 상반기에 209개 대회 열려

70만명 참가...하반기도 280개 예정

전남지역에서 올해 열린 체육대회를 통해 501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11일 “올 상반기 도내 22개 시·군에서 총 209개 체육대회가 열려 연인원 70만7000여명이 참가했으며, 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501억원(직접 350억·간접 151억)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비해 15개 대회가 더 열렸고, 연인원 11만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77억이 증가했다. 종목별로는 축구가 36개 대회가 열린 것을 비롯 게이트볼(14), 테니스(12) 순으로 나타났다.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게이트볼 대회가 자주 열리고 있다.

기간별로는 3월 이하 대회가 180개 대회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

며 1주일을 초과하는 장기 대회도 15개였다. 월별로는 6월 56개 대회, 5월 50개 대회, 4월 49개 대회 순이었고 추운 겨울철보다는 여름을 선호하고 있으며 대회당 평균 참가 연인원은 3383명으로 집계됐다.

전남도 내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280여개의 크고 작은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여름철에도 대한민국 레저 스포츠페스티벌, 대학생 풋목경연대회, 남도 보물섬 카약대회, 비치 발리볼, 마다수원, 갯벌 마라톤, 승마, 산악자전거, 뽕배대회, 연예인 초청 축구대회 등 다양한 대회가 예정돼 있다. 굵직한 국제 스포츠대회도 하반기

에 잇따라 열린다. 8월에는 강진에서 국제 중등축구대회가 열리고 9월에는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국제 스피드보트대회, 10월에는 목포 부두산에서 세계 클라이밍대회와 전남·제주간 국제 요트대회, 12월에는 화순에서 국제배드민턴대회를 유치했다.

전남도 방육길 스포츠산업과장은 “이제 체육대회는 보고 즐기는 차원을 넘어 골목 없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에도 전남만의 특색 있는 대회를 다양하게 개최해 경기력 향상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친환경 ‘무경운 농법’이 뜬다

농림부 저탄소시범사업 전남 4농가 선정

밭을 갈지 않고 농사짓는 ‘무경운(無耕耘) 농법’이 저탄소 녹색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11일 전남도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업실용화 재단이 추진하는 저탄소인증시범사업 12농가 9작목 가운데 전남 무경운 4농가 5작목이 선정됐다.

무경운농업은 관행 농업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앞작물 재배 후 밭

을 갈지 않고 다음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다. 토양구조 및 토양내 수분 이동 통로를 파괴하지 않아 토양환경이 안정되며, 토양의 내수성 입단과 공극을 증가 등 물리성이 개선되어 고추, 토마토 등 재배작물의 수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경운 농업은 연구결과 토양구조 및 토양내 수분이동 통로를 파괴하지 않아 토양환경이 안정되고

토양 물리성이 개선돼 ▲탄소 저장력 증진 ▲온실가스 발생 억제 ▲토양 침식예방 ▲생산비 절감 등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연구소 양승구 박사는 “무경운농업은 고령화, 지구 온난화에 맞춰 친환경 농가와 학계 등에서 주목받고 있다”면서 “아직은 고추와 토마토 등 특정작물에 한정돼 있어 대중화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많아 지속적인 연구로 새로운 농업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창의지도 학습안 발간

강진교육지원청 배부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옥식)은 최근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창의지도 학습안(CRM=Creative activity Resource Map) 교수·학습 과정안’을 발간해 관내 초·중학교와 기관, 교육기부 협력체 등에 배부했다.

이번 펴낸 학습안은 초·중학교에서 교수·학습 과정안을 곧바로 재구성해 사용할 수 있는 전남도 최초의 CRM 교수·학습 과정안이다.

강진 교육청은 학습안을 만들기 위해 5월말 경남 사천 용연초등학교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기존의 자료를 점검하고, 유능한 수업선도 교사를 중심으로 개발위원을 구성해 10여 차례의 협의와 토론 등을 거쳤다.

강진 교육청은 오는 11월 열리는 ‘창의체험 사례 발표회’ 역시 이번 학습안을 기본자료로 활용 할 계획이다.

강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습안을 활용해 일선 학교 교원들이 수월하게 현장에 대한 이해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새농민회 전남도회 ‘귀농인 멘토링’ 사업

화순서 한마을 전진대회

(사)전국새농민회 전남도회(회장 박규원)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인 멘토링(mentoring) 사업’을 확대한다. 멘토링은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멘토(mentor) 역할을 맡아 지도와 조언을 통해 대상자인 멘티(mentee)의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체계를 의미한다.

새농민회 전남도회는 지난 10일 화순 하니울 문화센터에서 회원 8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을 전진대회를

갖고 귀농인 5 부부와 전국 최초로 귀농인 멘토링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박규원 전남도회장은 이날 행사장에서 장은석·노광수 귀농본부에게 농기계(예초기)를 전달했다. <사진>

박규원 회장은 “귀농인과 새농민회 회원 멘토링 자매결연을 통해 새로운 농업인 육성과 귀농인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농협과 공동으로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운동’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전남도 읍·면 마을도서관 5개 짓는다

31일까지 신청 접수

도서관 없는 전남 읍·면지역에 마을도서관이 조성된다.

전남도는 “1억5000만원을 들여 주민자치센터 등의 마을 건물을 도서관으로 꾸미는 마을도서관 5개를 만든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마을도서관의 활용도를 높이

기 위해 경로회관, 보건진료소, 주민자치센터, 보육시설 등 타 시설과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출향 인사나 기업 등과 결연을 맺어 도서 기증운동을 전개해 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서관 운영은 지역 주민이 스스로 하게 되며 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마을 홈페이지에 사이버 도서관을 개설해 도서 기증이나 독서클럽 활동을

전개한다.

또 마을박물관 시범 조성 대상은 오는 31일까지 도서관이 없는 79개 읍·면으로부터 신청받아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8월부터 12월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인 작은 도서관과 학교마을 도서관을 적극 유치해 매년 15개소 내외의 도서관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5년 이내 도서관 없는 읍·면을 완전 해소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T 광주전남지사 메밀 계약재배 확대

aT(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성장현)는 메밀 생산기반 조성과 자급률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 등을 위해 메밀 계약재배를 추진한다.

광주·전남지사는 지난해 나주·진도·장흥·순천·담양지역 104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102ha에서 메밀 80t을 수매한데 이어 올해는 92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111ha에서 90t을 수매할 계획이다.

올해 수매 최저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kg 당 3800원을 보장해주고, 약정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전량 수매한다.

aT는 메밀 재배단지 규모화와 재배의욕 고취를 위해 ha당 공동 운영비 14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메밀밭 축제 개최 조직에는 2700만원 한도 내에서 행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성장현 지사장은 “저칼로리 식품인 메밀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생산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며 “aT는 앞으로 메밀 생산에서 마케팅까지 일관된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새 얼굴

“소통·화합하는 의회 만들겠다”

김중운 나주시의회 의장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당과 계파를 떠난 의정활동을 통해 ‘소통과 화합’하는 의회가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10일 나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김중운(54·무소속) 의원은 “원구성 과정에서 빚어진 계파별 갈등을 하루빨리 봉합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성공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이 전제된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며 “주민들의 다양한 비판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의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와 전남 지자체 가운데 무소속 의원이 의장에 당선된 것은 나주가 처음이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장맛비 속 흥련

11일 강진군 병영면 전라병영성 주변에 위치한 배진강 저수지에 흥련이 화사한 자태를 드러냈다. 불교에서 연꽃은 부처의 탄생을 알리려 피었다고 전한다.

<강진군 제공>

친환경 2012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 50% 확정!!

태양광시스템이 적용된 주택의 특징
태양광시스템으로 발전된 전력은 주택전기에 사용되고 남은 전력은 한전으로 역전송 됩니다. 역전송시에 한전계량기를 거꾸로 돌림으로서 전기를 약 80~90% 절약시켜 줍니다. 비가오거나 흐린 날씨에도 태양광은 소수전력이 생산되지만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한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 누진요금이 걱정인 곳
-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절감

3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300~35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만큼수확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기준전기요금(사용전력량 kWh)월액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 요금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00원
15만원 (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신청안내
안녕하십니까 태양광센터입니다. 해마다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설치를 못하고 지연하신 주택이나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 주시면 태양광 전문가가 직접 전화후 방문상담하여 일주일 이내에 설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062-512-1180/ H.P 011-659-7001